

지역 매 아리

완주군, 반려견 키우는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대청소 실시

완주군 용진읍이 반려견 20여 마리를 키우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회, 행복나눔봉사단 회원, 맞춤형복지팀 직원 등 20여 명은 3일 중증장애인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씨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곳은 개 20여 마리가 짊어대는 소음으로 고통받던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긴급 사례회의를 거쳐 애니멀 호더로 추축되는 김 모씨를 만나 개의 반출과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행했다. 김씨는 살뜰 2달여 만에 마음을 돌려 반려견 20여 마리를 유기견 센터로 반출했다. 김씨의 집은 수도가 고장난 상태로 집안 곳곳에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생활 쓰레기와 뒤섞여 산더미로 쌓여 있었으며 심한 악취와 벌레로 사람들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였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대청소는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모두 걷어내고 집안 소독과 곰팡이 제거, 폐기구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 수거 등으로 오후 늦게까지 계속 되었다. 비가 오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봉사자들은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날 힘을 모아 정리된 쓰레기는 1톤 트럭 5대 분량에 달했다.

용진읍 맞춤형복지팀은 이에 더해 김 모씨 가정의 도배장판과 싱크대 후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수급 책정 및 장애인복지관 연계를 통한 정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모악회, 9월중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기관·사회 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김제시장 박준배)는 3일 김제 시청에서 9월중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현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9월 월례회의에서는 김제역 정차 KTX 이용 홍보,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개최, 김제문화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 김제 폴리텍 대학 신입생 모집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4월 KTX 김제역 정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단체별 릴레이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KTX가 김제역에서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 모악회원들의 활동상황 보고와 KTX 이용 홍보가 있었고, 김제지평선축제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우선시 대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제문화원 김선유 원장은 축제기간에 벽골제에서 개최되는 천지제,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김공목 학장은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을 홍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법령개정 이끌었다

‘재해영향평가 완화’ 규제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국무조정실, 건의과제 수용...오는 2020년 8월까지 개정

완주군이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지난달 말 최종 수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는 장이다.

완주군은 효율적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읍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지원 및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발목잡는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최용민(시설?6급)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건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완화’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했고,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현행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 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 개선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민 팀장은 “업무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 행복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또 한 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완주,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제2기 지역혁신가에 2명 선정

균형위, 두월천노을권역 송용석 위원장·글로벌투게더김제 정영희 사무국장 25일~27일 순천 개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시상 예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에서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제2기 지역혁신가’를 선정하였으며 김제시는 두월천노을권역 송용석 위원장과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정영희 사무국장이 포함되었다.

지역혁신가는 ‘교육·복지,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균형위는 제2기 지역혁신가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균형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총 160명이 추천되었고 지역혁신 아이디어의 참신성, 가치 창조력, 사회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분과 종합 심사위원회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2명을 선정하였으며 김제시는 2명이 선정되었다.

두월천노을권역의 송용석 위원장은 권역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원예치유교실, 어르신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두월천작은마을축제를

특색 있는 테마로 개최하는 등 마을주민의 공동체성 회복과 주체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의 정영희 사무국장은 다문화 여성의 사회 정착을 위해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김제시민의 건강한 가족부지를 지원하였으며 베이커리엔카페이를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혁신가에 우리시민들이 선정된 것은 우리의 많은 인재들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핵심주체를 키우기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최종 선정된 62명에 대해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장애인 및 가족지 지 재활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하반기 재활교실 프로그램을 2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 기초검진,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과 외래치료, 원예치료와 통합건강증진사업(치매, 영양, 금연, 한방, 정신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활교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김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총10회 진행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에 적응하고 재활의지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로 장애인의 기능과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10월 3일 9시 30분/오후 2시, 6일 오후 2시에 세계 최고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진다.

‘지평선 하늘을 날자!’ 두시&날자

김제시, 지평선축제기간중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10월 3일 9시 30분/오후 2시, 6일 오후 2시에 세계 최고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두시&날자’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블랙이글스 에어쇼 ‘두시&날자’는 작년 전북도내 처음으로 보여준 이후 올해도 김제지평선축제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블랙이글스 전 기종 풀 디스플레이(Full Display)로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이며 23분간 지평선 하늘을 수놓는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휴일, 10월 3일(목) 2회(9시30분 사전비행, 14시 실재비행) 10월 6일(일) 1회(14시 실재비행) 에어쇼 실시로 파란 지평선의 하늘을 화려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김제지평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공을 가르며 8대의 항공기를 편대로 구성 된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는 10월 3일 16시 중앙광장에서 팬사인회를 활짝 열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고 공군 블랙이글스가 우리 지평선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관광객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축제장을 방문해 멋진 장관을 같이 관람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차그룹, 추석 연휴 전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3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4181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122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 이웃 및 결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천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일찍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지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추석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